

공급망기금 문턱 낮춘다... 중요 품목 최대 100% 대출·중소 지원 확대

앞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은 소요자금의 최대 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는 2500억원 규모 전용펀드가 새로 조성돼 해외 자원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이 확대되고, 재무제표 중심의 심사체계도 개선돼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이 한층 원활해진다.

특히 공급망 중요도에 따라 최대 2.3% 포인트(p)의 금리우대가 적용되고, 수출입 은행의 자금 출연을 허용하는 법·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와 요소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난을 계기로 경제안보 품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신설된 정책금융 기금이다.

이 기금은 금융·투자 지원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대출 등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 상용화 이후 단계에서 기업의 시장 안착 및 양산화를 간접 지원한다는 식이다.

해당 기금은 지난 1년간 6조5000억원을 공급하며 국내 산업의 생산망 유지에 기여했다. 다만 대출 중심의 보수적 운용과 중소기업 지원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직·간접 투자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1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외 자원개발·운송 인프라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해 지원 확보와 수입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신용 등으로 여신 한도가 낮은 중소기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정부, 31일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선방안 발표 1년간 6.5조 공급... 중소기업 지원 한계 지적 매년 1000억 규모 투자프로그램 신설해 지원 ↑ 공급망 중요도에 따른 차등형 금리체계 도입 수출입은행 기금 출연 허용 등 법개정도 병행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재무제표 중심 심사'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존에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기자본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운용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금리체계도 도입된다.

1등급 품목에는 최대 2.3%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2등급은 2.0%p, 3등급은

1.7%p 수준으로 조정한다. 비선도사업자는 대출한도를 기존 90%에서 100%까지 확대해, 핵심 품목에 대해선 전폭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간 업무조율 협의를 통해 유사 정책금융과의 중복을 차단하고, 대규모 사업은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도 병행한다. 우선 수

출입은행의 공급망기금 출연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인정하는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또한 벤처·신기술 투자조합을 간접투자 대상으로 추가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 기업의 기금 출연도 허용한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누적 6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대기업 29건(5조5041억원), 중소·중견기업 35건(9044억원)으로 지원 비율이 균형을 이뤘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조사 결과, 기금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는 9.59점(10점 만점)으로 높았다. 특히 핵심광물 분야 기업의 비추락률은 평균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시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하고 커피 쿠폰 받으세요 전남도, 오는 11월 7일까지 도민 150명 추첨

전라남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7일까지 '소비쿠폰 사용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소비쿠폰을 사용한 전남 도민 중 15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행사다. 참여 방법은 도내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한 뒤 영수증을 인증폼에 업로드하면 된다. 세부 참여 절차와 링크는 전남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9월 22일 2차 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1차 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2차 이벤트도 소비쿠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도민의 생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온기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전남도는 기간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임재일 기자



광주시민 1천여명, 시민사회박람회서 '활짝 연결'

광주시, 전일빌딩245 일원서 개최... 환경·인권 등 시민사회 경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일 전일빌딩245 일원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꾸민 '2025 광주시민사회박람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가 활짝 연결되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박람회는 환경·인권·여성·평화·교육·예술 등 시민사회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35개의 무료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박은영 광주인권지키 활짝 상임

활동가, 박해정 광주비건탐식단 대표, 유정민 광주전남축산물공동 사무국장 등 공로자 3명에게 광주광역시 표창장이 수여됐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오랜 세월 시민사회의 힘으로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온 곳이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시야말로 진짜 민주도시 광주이다"며 "시민사회가 강할수록 도시의 민주주의는 깊어진다. 광주시는 언제나 시민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시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열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필 기자

전라남도는 지역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남도체험투어 프로그램'을 12월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남도장터(www.jnmail.kr)'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남도체험 투어 프로그램'은 전남도가 체험 프로그램의 교육적 성과와 시설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선정된 39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109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고추장 만들기, 농산물 수

전남도, '남도체험투어' 온라인서 10% 할인

반려식물부터 전통요리까지 39개 업체 109개 프로그램 운영

확 체험, 천연 화장품 만들기, 차문화 체험, 치유형 목장 체험, 반려 식물 키우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준비됐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과 연계한 농촌 테마 관광 콘텐츠로도 활용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맘스호미의 김선주 대

표는 "농촌 체험 농장을 운영하면서 방문객 모집과 홍보에 온라인 플랫폼이 많은 도움이 됐는데, 여기에 10% 할인 판매까지 진행되니 많은 분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촌 방문객이 늘도록 다양한 체험과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